Original Article

교양교육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사례 연구: 비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라 미 진

배재대학교 항공운항학과

Case Study on Global Competency Reinforcement of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Non-Curricular Areas

Mijin Ra, Ph.D.

Department of Global Aviation Service, Pai 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Received: April 2, 2021

Revised: April 9, 2021

Accepted: April 11, 2021

Corresponding Author

Mijin Ra
Department of Global Aviation Service, Pai Chai University, 155-40 Baejae-ro, Seo-gu, Daejeon 35345, Korea
Tel: +82-42-520-5010
Fax: +82-42-533-7354
E-mail: mijinra@pcu.ac.kr

ORCID

<https://orcid.org/0000-0003-3812-056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ways to strengthen it through comparison and curriculum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global competencies in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Methods: In order to explore ways to reinforce the sub-competence of global competen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a four-year university in Chungcheong-do for one year in 2019, such as 'Global Culture Talk', 'Global Travel', 'Global Nanta', and 'Making Global Friends'. Cases of comparison and applic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were analyzed. The program was attended by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Aviation Service, Department of Design, Department of Manga Animation, Department of Broadcasting and Film, and foreign exchange students. The competency-centered curriculum not only has clear educational goals, but is also very advantageous in establishing a feedback system by measuring its performance. This study will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plan by diagnosing the change in competencies before and after the comparison and curriculum is operated.

Results: The overall global competency has increased by 0.2 points compared to 2017. By sub-sector, it was found that the flexibility increased by 1.4 points. In the field of cross-cultural understanding, it rose 0.6 points, and in the field of global understanding, it rose 2.2 points, showing the largest increase in the sub-fields. Nevertheless, the field of global interest remains at a low level. This is considerably low compared to flexibility and ability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it is expected that measures for improvement should be continuously sought. Since th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has already exceeded 60 points, it is expected that the global competency of the university will be strengthened if the level is consistently maintained and the emphasis is placed on enhancing flexibility and improving global understanding.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global capabilities is steadily rising. Universities are also reorganizing the curriculum by analyzing the needs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consumers to respond to this. The programs opera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were also made as part of this effort. However, since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global competency, it cannot be but admitted that it is not easy to gauge the change in competency with only a few programs and short-term efforts. However, if the efforts pursued by this study are accumulated and supplemented through feedback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can be expected that there are not a lot of contributions to strengthening global competencies in liberal arts education.

Keywords: Education, Universities, Aptitude, Culture

I. 서 론

최근 들어 대학교육은 역량 강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역량 중심의 교육은 직업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대학의 교육목표 설정과 평가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역량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군을 묶어 핵심역량으로 분류된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역량 가운데 대학의 인재상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분야로 뽑힌다. 이러한 추세에 글로벌 역량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특히 교양 교육을 독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양 관련 단과대학이나 교양교육원 등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과정이 고등교육에 도입됨에 따라 인재상 및 핵심역량의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변혁의 시도가 있어왔는데[1], 이는 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 현실은 글로벌 역량을 외국어 능력과 등가의 가치로 이해하는, 다소 제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무리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글로벌한 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한 인식과 매너 및 정치·경제의 수용성과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1].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역량에 대한 중요성의 확대 및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교육 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의들이 이어졌고, 현재는 교과 교육과정 못지않게 비교과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unenburg (2010) [2]은 교육의 자율성과 학생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비교과 교육이 학생 중심적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 이해의 관점에서, LaFrance와 Shakrah (2006) [3]은 비교과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의 주된 요인인 인류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감성적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에 대한 개념을, 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에서 연구된 정의를 활용하였다. 글로벌 역량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된 후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행하고 있

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하는데, 글로벌 역량을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으로 정의한다[4]. 글로벌 역량의 세부 하위 영역은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뉜다. 유연성 및 적극성,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요인이 역량의 정도를 좌우하는 하위 영역이다. 유연성 및 적극성은 인종이나 종교 등 다른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나 생활 환경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성향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글로벌 매너에 대한 지식 및 이해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정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열린 이해는 세계화 및 글로벌 정치·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포함한다.

이상의 하위 능력은 ‘문화 유연성’, ‘타 문화 이해’, ‘글로벌화 이해’로 축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역량의 하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2019년 1년간 실시한 ‘글로벌 문화 토크’, ‘글로벌 여행’, ‘글로벌 난타’, ‘글로벌 친구 맺기’ 등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에는 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디자인학과, 만화에 니메이션학과, 방송영화학과 재학생과 외국인 교환학생이 참여하였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환류 체계를 수립하는 데도 매우 유리하다.

본 연구는 비교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전과 후의 역량 변화를 진단하여 교육방안의 효율성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진단 도구에는 대표적인 해외 역량진단검사인 OECD의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미국의 CLA (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호주의 GSA (Graduate Student Assessment)가 있으며, 국내 역량진단검사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시스템(Korea Collegiate Essential Assessment, K-CESA), 숙명여자대학교의 SM-CLA, 성균관대학교의 SCCA, 건양대학교의 핵심역량진단평가 등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K-CESA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높일 것이다. K-CESA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온라인 진단도구로서, 고등교육의 성과 측정과 질 관리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이 시스템으로 핵심역량을 관리하고 있다[6].

1. 글로벌 문화 토크

문화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복합적 개념이다. 문화는 특정 공간에서 세대를 이어오면서 축적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역량에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분야가 바로 문화적인 측면이다. 이는 외국어 습득 능력에 초점을 두었던 그동안의 교육방향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이해 자세와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면, 글로벌 역량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토크'의 방식으로 문화적인 이슈에 접근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양한 국적의 문화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서로 다른 특징을 이해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글로벌 문화 토크는 언어 습득의 차원을 넘어 음식, 음악, 경제, 예절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문화를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 공감 능력과 조정 능력을 기르고,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글로벌 문화 이해력을 향상하여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길러지는 역량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과 소통함으로써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제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문화 토크에 참여하는 학생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여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 비교과 교육방안으로 마련된 프로그램 대부분에 적용되었다. 가능한 다양한 국적 학생들의 어우러짐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효율적인 것이다. 외국인 학생은 주로 중국과 일본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문화 토크의 주제는 아시아 권역으로 국한하지 않았다. 문화 토크를 통해 세계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국가나 문화권 간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불편함은 학생 가운데 통역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등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글로벌 여행

여행은 글로벌 개념과 매우 친숙한 영역이다. 여행은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인 여행지는 '이곳'과는 경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소의 개념을 해외로 확장한다면 그 이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연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은 글로벌 역량과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은 대학생들에게도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대학생 자신들이 계획하는 글로벌 여행은 방학이나 졸업 후에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의 개요는 세계 각지의 여행지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여행 상품을 개발하며 해당 여행지를 갈 때 필요한 나라별 글로벌 매너를 익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행지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행지에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매너를 익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의 여행 상품을 개발해 보고 해당 여행지를 갈 때 필요한 나라별 매너와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관광상품을 직접

개발하며 해당 여행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글로벌 매너를 익혀 글로벌 문화인의 자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3. 글로벌 난타

예로부터 음악은 어떤 장르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소리의 울림이 그 어떤 형식적 구애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악기는 연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난타'라는 명목하에 일종의 간략한 훈련을 거치면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언어를 초월하여 난타를 즐기면서 공감하고 동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난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글로벌 역량은 외국어 능력, 타 문화 이해 능력 등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과 같이 음악을 함께하는 등의 활동이 국가 간, 문화 간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 글로벌화에 대한 마인드를 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난타의 프로그램 개요는, 타악기는 두드리기만 하면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기본 테크닉과 타악기 앙상블을 통하여 무대공연 작품을 만들어나가며, '일반 사물의 음악적 소재화' 과정을 느끼는 것이다. 운영목표는 타악기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무대 공연 작품을 통하여 사회와 대중이 같이 호흡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흥미로운 소재와 에피소드가 가미된 커리큘럼으로 음악과 율동이 가미된, 개성적인 공연물을 창조한다. 더불어 체계적으로 습득한 타악기 연주력으로 보다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글로벌 난타의 프로그램은 5차시의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1차시에서는 난타에서 기본이 되는 예비박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두었다. 이는 합주를 하기 위해 자신의 악기를 이해하고 박자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난타는 타악기를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 곡 전체에서 자신의 분야만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쉽게 합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시에서 진행되는 예비박을 이해하고 솔로 곡에서 자신의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시에는 바디뮤직(body music)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난타는 악기를 통해 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주 과정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야 한다. 즉, 연주 과정이 타악기의 특성에 맞추어 활력 있는 율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악기에 어울리는 바디뮤직을 익히는 과정을 둔 것이다. 연주와 마찬가지로 바디뮤직 또한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음을 맞추고 자신 또한 그 움직임에 동화되면 자신만의 바디뮤직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소리와 몸짓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3차시에는 아프리카심포니를 파트별로 연습하고, 4차시에는 이 곡을 합주로 연주한다. 5차시에는 바투카타를 합주하며 하나가 됨을 체험하고 공연을 통해 함께 관중 앞에서 연주하며 동질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한다.

4. 글로벌 친구 맺기

글로벌화는 그 추세와 시스템 및 사회 변동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 글로벌 역량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늘 대인관계 상황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친구 맺기는 글로벌 역량 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에서 거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대인관계 능력과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대상이 타국, 타 문화를 동반한 친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글로벌 역량이라 함은 주로 내국인이 타 문화나 타국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글로벌화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문화와 가치들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속의 자신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친구 맺기의 프로그램 개요는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친구 맺기 방식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외국인 친구와 대인 관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역량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의 능력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향상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친구와 교류함으로써 한국인 학생은 글로벌 공감능력을 기르고 외국인 학생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캠퍼스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다.

글로벌한 대인관계는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다. 이는 글로벌한 대인관계 속에 글로벌 역량의 하위 능력인 유연성, 타 문화 이해력, 글로벌 이해력 등이 자연스럽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구라 함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서 이해타산을 멀리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나 국적의 친구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게 되면 글로벌 역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친구 찾기부터 시작해서 5차시에 걸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시에는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아 인연을 맺는 과정이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거나 타 문화나 타국에 대한 특별함이 인연 맺기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1:1방식의 친구 맺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가급적 동일 수의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친구가 되는 구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1:1 방식을 필수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다 유리하다. 의사소통 장애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각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발휘하여 보다 쉽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간대가 끝나고 나서도 친구 맺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즉, 2차시의 활동이 진행되기 전까지 맺은 친구들 간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신뢰와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2-5차시에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2차시에는 글로벌 친구들과 학교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글로벌 친구들은 주로 같은 공간을 반복해서 오가는 경우가 많다. 학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 외에도 학교 내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면 글로벌 친구와 동행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학교 안에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행사들이 진행된다. 이런 곳에 글로벌 친구들 동행하여 설명하면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3차시에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 기행은 탐방의 장소를 교내에서 교외로 확장한 것이다. 학교 밖의 문화 공간은 굳이 잘 알려진 곳이 아니어도 된다. 사람이 살아간 흔적이 있는 곳은 문화가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근처를 탐색해보면 글로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 있을 것이며, 그곳을 찾아 스토리를 이어가면 된다.

4주차에는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며 우정을 다지는 과정이다. 각 문화권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농수산물에 있다. 이는 인간의 노력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은 각 문화권이 처한 상황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발전되어 왔으며, 그 상황에서 인간에 요구되는 음식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음식의 이해는 문화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떡과 김치 만들기는 단순히 음식을 체험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쌀 농경문화에서 발생한 떡을 만들며 그 밖의 쌀 재료 중심의 음식을 설명하고, 김치 문화가 발전하게 된 동기를 공유하며, 글로벌 친구가 자신의 문화권에서 누렸던 음식을 함께 소개받기도 한다.

5차시는 그간의 친구 맺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여권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진행된다. 인연의 차원을 자기의 공간으로 확장하고 그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그것은 가족이 어도 좋고,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이어도 좋다. 자신이 형성한 사회에 글로벌 친구들 초대하여 그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은 더 넓은 관계를 지향하게 된다.

III. 결 과

1. 글로벌 문화 토크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은 6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시에서는 대학생으로서 지니고 있는 ‘꿈’을 주제로 하였다. 꿈은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목표 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생들이라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서 꿈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1차시에 첫 주제로 잡았으며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으로 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내국인 학생들의 꿈은 주로 직업적인 차원으로 정해졌다. 회화와 디자인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국적이 다양하여, 다른 국적의 학생 간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더욱 활발한 토론에 기여할 수 있었다.

2차시는 각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 및 사회적 뉴스를

중심으로 각자 하나의 이슈를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으로서 자국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처해있는 공간을 넘어 외국인 학생과 공유함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생은 준 사회인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학교 공간에 머무르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곳이 아닌 국외에서 '여기'와는 다른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함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준비와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의 주제는 돈으로 진행하였다. 시장경제에서 돈의 위력은 점점 그 힘을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씩 적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로 우정, 시간, 가족 등 자신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기에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개념을 적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 이 개념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반박의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간'의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자신의 시간을 벌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의견을 주고받으며 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까지 토론의 폭을 넓혀갔다.

4차시에는 고민과 행복에 대한 주제였다. 각자의 고민과 행복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며, 불행의 옆에 행복이 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5차시에는 떡볶이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음식과 예절에 대해 토론하였다.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과 외국인이 접하기 힘든 음식을 소개하며 각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6차시에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겨날 직업을 예측하는 주제였다. 각 국가별로 지난 10여 년간 새롭게 생겨난 직업과 사라진 직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직업 세계를 전망하는 토론이었다.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가 5점, '그렇다'가 4점, '보통이다'가 3점, '그렇지 않다'가 2점,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문화 토크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4점대 중반을 형성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Fig. 1). 다만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저조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대학생들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많이 구비하여 설득력을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습이 겸비되면서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2. 글로벌 여행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은 관광이나 서비스 분야와 밀접한 항공서비스학과 등 항공학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지의 탐색이 아니라 글로벌 여행을 이해하고 여행자의 입장에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발표 형식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은 12차시로 진행되었다.

1-3주차까지는 여행지를 선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1차시에는 선호하는 여행지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전하고 여행의 가치가 있는 곳을 각자 선정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 2차시에는 각자 선정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으로 계획되었다. 3차시에는 해당 여행지를 여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4-7차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두었다. 관광상품은 단순히 여행지의 선정뿐만 아니라 항공권에서부터 여행지의 교통편, 음식과 숙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4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하나의 코스를 학생 스스로 개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여행상품을 검토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의 상품을 모방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선정하여 변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개발된 관광상품은 가상의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성의 한계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이라든지, 특이한 관광자원이 없지만 그곳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관광자원화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들도 눈에 띄었다.

8-10차시는 관광지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매너는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해외여행은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만날 때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익혀야 할 매너 등을 공유하였다. 테이블 매너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사항을, 와인 예절에서는 와인뿐만 아니라 주류 및 음료 전반에 걸친 예절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11-12차시에는 관광상품을 완성하여 소개하는 시간으로 계획하였다.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4점대 후반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2). 이와 같은 결과 수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5점에 해당하는 '매우 그렇다'에 근접한 만족도를 보였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는 글로벌 역량 강화와 밀접한 전공

Fig. 1. Satisfaction with the global culture talk program (5-point scale).

Fig. 2. Satisfaction level of global travel program (5-point scale).

Fig. 3. Satisfaction with global friendship program (5 points scale).

분야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더구나 실제 여행상품이라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글로벌 매너와 문화 및 여행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질을 익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환류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여행상품 프로그램 개발자를 초청하여 특강의 형식으로 7-8차시에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글로벌 친구 맺기

글로벌 친구 맺기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체로 4.34에서 4.4점을 형성하였다(Fig. 3). 글로벌 친구 맺기는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에 만족도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관식으로 기술한 학생들의 의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친구를 대면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자 측의 지원 강화를 요구한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학교 인근 문화 공간 탐방 같은 경우 교통편의 제공이나 중식 등의 편의 제공을 아쉬워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지금에도 여전히 친구의 인연을 이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완할 점을 환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면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I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글로벌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단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되

도록 하였다. 글로벌 역량의 강화를 위해 하위 능력으로 유연성, 타 문화 이해, 글로벌화 이해 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사회·문화, 여행, 음악, 개인적인 친구 맺기 등의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프로그램별로는 별도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하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단결과를 연도 간에 비교함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의 중요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학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운영하고 분석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글로벌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단기적인 노력만으로 역량의 변화를 가늠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가 추구한 노력들이 축적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환류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교양교육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Mijin Ra, <https://orcid.org/0000-0003-3812-0561>

REFERENCES

1. Shin MS, Moon HY, Choi J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glocal competence in higher education. *CNU J Educ Stud* 2019;40:233-247. <https://doi.org/10.18612/cnues.2019.40.3.223>
2. Lunenburg FC. Extracurricular activities. *Schooling* 2010; 1:1-4.
3. LaFrance J, Shakrah JA. Acting against oppression. *Academe* 2006;92:50-54.
4. Son YM, Song CY, Lim E. A study on support and utilization of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6 Dec. Report No.: 2016-05. pp. 177-178.
5. Kim S, Lee MK. A study on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ollege extracurricular programs. *JLCCI* 2016;16:1-25.
6. Son YM, Song CY, Lim E. A study on support and utilization of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8 Dec. Report No.: 2018-17. pp. 181-182.